



언더라이팅을 통한 사이버위험의 재평가 필요성

손민숙 연구원

역향

PwC는 사이버위험에 대한 평가범위와 손실규모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언더라이팅 강화를 통해 사이버보험 상품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향후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조사대상 보험회사의 75% 이상이 사이버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례재보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향후 해결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최대발생가능손실규모(Potential Maximum Loss)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PwC는 전문적인 언더라이팅을 통해 사이버위험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PwC는 사이버위험에 대한 평가범위와 손실규모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¹⁾

- 미국의 독립형 사이버보험²⁾ 시장은 연간 25억~35억 달러로 추정되며 향후 3년간 20억 달러가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³⁾
- 그러나 사이버위험에 대한 평가범위와 손실규모가 적정한지는 불분명함
- 사이버보험관련 언더라이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언더라이팅 강화를 통해 사이버보험 상품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은 최근 80% 미만의 합산비율을 목표로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보험회사의 58%가 목표를 달성하여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결과에 대해 PwC는 예상보다 큰 사이버위험이 발생할 경우 준비금 및 보험금 청구 관련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1) PwC(2018), "Are insurers adequately balancing risk & opportunity?"
 2) 다른 위험과는 독립적인 사이버위험만을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의미함
 3) PwC(2018), "Top issues"

〈표 1〉 최근 사이버보험의 합산비율

(단위: %)

합산비율	응답률
~ 70% 미만	25
70% 이상 ~ 80% 미만	33
80% 이상 ~ 90% 미만	33
90% 이상 ~ 100% 미만	8

자료: PWC(2018), "Are insurers adequately balancing risk & opportunity?"

- 조사대상 보험회사의 75% 이상이 사이버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례재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해결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최대발생가능손실규모(Potential Maximum Loss)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 설문조사 결과 출재비율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보험회사의 비중이 58%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위험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보험회사 사이버 비례재보험 출재비율

(단위: %)

비례재보험 출재비율	응답률
~ 25% 미만	18
25% 이상 ~ 50% 미만	18
50% 이상 ~ 75% 미만	33
75% 이상 ~	25

주: 응답률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자료: PWC(2018), "Are insurers adequately balancing risk & opportunity?"

- 최대발생가능손실규모의 관리(95%) 이외에도 새로운 시스템 위협에 대한 대처(75%), 포트폴리오 관련 시나리오 설계(65%), 총 노출 위험 파악(55%), 기타(5%) 순으로 응답함⁴⁾

- PwC는 급변하는 환경과 시스템의 영향으로 미래 사이버위험은 과거 사이버위험과 다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전문적인 언더라이팅을 통해 사이버위험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kiri](#)

4) 괄호 안의 숫자는 응답자 비율임